



대학주보

소수자 인권기구 학소위 존폐 기로 정치활동·예산 운용·대표성 두고 논쟁

김유경 기자 ghajfs@khu.ac.kr

【서울】지난 2일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 폐지와 대안기구 설립 제언을 위한 임시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발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안건은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23일 정경대 신하균(사회학 2023) 학생회장이 중운위에 제출한 것으로, 학소위 역할, 조직 운영,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폐지 및 대안 기구 논의를 골자로 한다.

학소위 사업 놓고 첨예한 입장차

정경대 신 회장은 학소위 폐지 근거로 장애학생 휴게실 신설 순가락 없기 의혹, 장애인 전형 확대 및 학과 차별 폐지, 과도한 정치 참여, 예산 운용 등을 제시했다.

학소위가 SNS에 업로드했던 [장애학생 휴게실 신설 보고]와 관련해 정경대 신 회장은 "신설이 아닌, 기존 휴게실을 옆 호실로 이전한 것일 뿐"이라며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복지평가 분야를 개선하고 우수 여부를 평가받고자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학소위는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면담에서, 장애학생 휴게실이 센터 사무실 내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열악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갔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학소위가 함께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국제캠과 타 대학 사례를 취합해 소통간담회에서 휴게실 이전 및 시설 개선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유관부서와 지속적인 면담을 진행하며 장소 답사, 구비물품 조사 등 실질적 이전 계획에



지난 5일, 학소위는 정문 앞에서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학소위는 "기구 존속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을 모아 확운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하시연 기자)

참여했고, 개소식에도 학소위가 참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학소위가 추진하는 장애인 입학 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정경대 신 회장은 "우리학교는 총 15명의 장애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성균관대 10명, 서울시립대 10명, 중앙대 8명 등으로 타 학교보다 많은 인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학소위는 소명문에서 "고려대가 정시 모집 인원 중 36명을 장애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15명은 절대 충분한 숫자가 아니다"라며 "교육 불평등 해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 회장은 "학소위가 언급한 고려대는 정시 선발이 중심인 반면, 우리학교는 수시 중심이기에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소수자 권리 보장 활동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

학소위의 과도한 정치 참여 비판에 신 회장은 "총학과 단과대 학

생회는 정치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와 의결을 진행한다"며 "학생 자치 기구가 많은 우리학교 학생을 대변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정제된 의견을 내리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 회장은 "학소위는 의결과 논의 없이 임의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 왔다"며 "학생 자치기구가 정치적 의견을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학소위의 활동을 분석해보면, 유난히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소위는 "특정 계파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공동체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활동"이라며 "장애학생, 쿼어 등 직접적으로 의견을 듣기 어려운 소수자를 찾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끊임없이 본부 및 총학생회와 소통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규탄 활동에 대해서는 "비민주적 계엄을 규탄하는 활동을 이어나간 것은 학생총회 이후 어

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이라며 "단순히 정권 퇴진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탄핵을 넘어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탄핵 이후에도 혐오 정치인이 재차 등장해 소수자의 삶을 짓밟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소위가 진행한 '잔디밭 세미나' 강연자에 자치회비로 강연료를 지급한 것을 두고 "학소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연사자를 선정했고, 어떤 기준으로 강연료를 책정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학소위는 "강연자는 3년 이상의 인권 활동 등 관련 사안에 충분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경대 신 회장은 학소위가 자치회비로 교외 시민단체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비판했다.

2면에 계속 →

수강신청 제도 개선 TF팀 출범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지난 5월, 양캠 학사지원팀을 중심으로 수강신청 제도 개선을 위한 수강신청 TF팀이 출범했다.

수강신청 TF팀에는 양캠 단과대 담당자, 정보처 학사정보팀 담당자, 학사지원팀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학사지원팀은 "더 많은 학생이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서울캠에서 열린 '경희교육혁신비전선포식'에서의 '총장과의 대화' 중 문과대 양우혁(응용영어통번역학 2021) 학생회장이 수강신청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양 회장은 "교양 과목은 학생들이 원하는 시기에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전공과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물었다.

이에 김진상 총장은 "학생 요구에 맞는 수강신청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성수 국제캠 교무처장은 "현재 양캠 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서 수강신청 개선을 위한 TF팀을 가동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전선포식 이후, 우리신문과 인터뷰한 김 처장은 "수강신청은 굉장히 첨예한 문제라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선뜻 나서기 힘들다"며 "양캠 학사지원팀장이 논의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연세대, 해외 대학 등의 사례를 분석하며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와 몇몇 해외 대학은 '마일리지 선택제'를 운영하는 등 선착순 클릭을 통한 수강신청과는 다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김 처장은 "수강 좌석을 늘리는 것은 강의실 규모, 교수 채용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온·오프라인 병행 과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2 종합

무전공 입학 확대... 신입생 4명 중 1명 ‘열린 전공’으로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무전공 입학 모집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경영대(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공대 기계공학과 ▲외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호관대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 신입생 모집 유형이 ‘열린전공 유형 2’로 추가된다.

이는 작년 교육부가 발표한 무전공 유형2에 해당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추가 가산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무전공 유형2는 학문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의 무전공 모집 유형이다.

이번 개편은 무전공 입학 정원 선발을 확대하려는 대학의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 전략기획팀은 “2025학년도에 열린전공 유형1을 신·증설하며 본격 도입한 이후, 대학은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교육혁신의 목적으로 열린전공 유형1과 유형2에 참여하는 단과대 및 학과의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정부재정지원 수입 확대 기대 신입생 4명 중 1명 ‘무전공’

이번 개편으로 전체 신입생의 26.6%(유형1 11.6%, 유형2 15%)가 무전공으로 입학한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추가 가산점을 확보, 정부재정지원 수입을 확대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략기획팀은 “교육부는 2024년부터 정원의 25% 이상을 전공자유선택제로 운영할 것을 권고해왔다”며 “특히 수도권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 단계의 혁신 성과에 대해 가점 최대 15점을 부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히 몇 점의 가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정부재정지원 수입을

얼마만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는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략기획팀은 “지난 27일 대학혁신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 앞으로 절차들이 남아 있다”면서 “해당 절차들이 다 통과된 후 6월 말이나 7월 초쯤 사업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새 교육과정은 “올해 안으로” 기존 교육과정 유지하기도

개편에 따라 내년도 경영학과와 회계·세무학과는 ‘경영회계계열’로 통합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신입생은 1년 동안 경영회계계열 과정을 거친 후, 2학년 진급 시 경영학, 회계·세무학중 세부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기계공학과는 내년도 신입생부터 ‘기계공학부’로 입학한다. 다만 다른 학과와 달리, 2학년 진학 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각자 자신만의 전공 과정을 설계하고, 전공 인증을 통해 원하는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은 현재 논의 중이다. 회계·세무학과 최연식(경영학) 학과장은 “내년도 수강강의 편성이 10월, 11월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교육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학과 관점에서 제공하는 전공과목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기에, 학생 전공 전문성이 약화 된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계공학과 이병찬(기계공학) 학과장도 “교육과정은 올해에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와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는 기존 운영 형태가 열린전공 유형2와 큰 차이가 없어 교육과정상 큰 변화는 없을 예정이다.

전략기획팀은 “두 학부는 원래부터 유형2 형식으로 운영되던 학부



라 기존 체제나 교육과정 변화는 없다”며 “입학 요강에만 열린전공 유형 2로 참여하는 학부로 표기된다”고 말했다.

호관대 행정실 오은희 계장은 “지난 4월경 전략기획팀에서 열린전공 유형2 참여 제안이 왔고, 참여를 결정했다”며 “기존 학부 체제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변화 지점으로 “관광엔터테인먼트 학부는 현재 신입생이 2학기부터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체제인데, 개편을 통해 1학년이 끝나고 2학년부터 세부 전공을 선택하도록 바뀐다”고 설명했다.

쏠림 현상·세부 전공 설계 등 우려는 여전

다만 전공 쏠림 현상 우려는 여전히 불안한 지점이다. 회계·세무학과 최 학과장은 “2학년 진학 시 몇 퍼센트가 회계학과나 경영학과를 선택할 것인지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학생 전공 설계에 도움을 주는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으로 작동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영대 행정실 손승연 계장은 “전공을 선택하기 전 단계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이용해 향후 수업 운

영에 반영하려 한다”며 “아직 시행 전이기에 예측되는 상황에 사전 준비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계공학과 이 학과장은 “굉장한 자유도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만큼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학생들이 그에 익숙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런 면에서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학과 학생회에서 수강 과목 선택 가이드를 만들기도 하고, 학과에서는 어떻게든 학생과의 친밀도를 높여서 정보를 조금 더 손쉽게 전달할 수 있게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면에서 계속 →

학소위는 이에 “분담금은 소수자인권 옹호라는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단체와의 공동행동, 집담회 등 행사나 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집행한 비용”이라며 “타 대학 소수자인권위원회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소위가 제공한 실제 지출 내역에는 ‘딤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5,000원, ‘윤석열 탄핵 대응 집담회 강의실 대여’ 28,000원, ‘윤석열 탄핵 찬성 유인물 제작’ 20,000원 등이 포함됐다.

“학소위는 폐쇄적인 대표성” “자치단체 독립성 훼손”

위와 같이 학소위에 제기한 여러 문제에 대한 결론으로 신 회장은 학소위 폐지 및 대안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신 회장은 “학소위는 폐쇄적인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회원제 자치기구”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안 기구로 제안하는 인권복지위원회도 특별 자치기구로 존재하되 총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사무국장이 실무를 보는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소위는 회칙에 따라 본회 정치

원에게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부여한다. 정회원 자격은 가입 신청서 및 제출과 같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부여된다.

학소위는 “학내 특별자치기구가 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치 시스템”이라며 “후마 대학생 위원회와 총동아리연합회처럼 정회원·준회원 제도를 통해 선거권을 부여하며 정회원은 신청 절차 혹은 위원장단의 인준을 통해 자격을 얻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치단체의 회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자치 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폐지는 의결권 남용” “정당한 절차로 반민주적 아냐”

학소위는 안건 통과에 “시험 기간 중 절차적 숙의 없이 긴급히 폐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학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의결권 남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신 회장은 “해당 논의는 회칙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다양한 대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 구조가 확장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졸속적이거나 반민주적인 접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9일 열리는 임시 학운위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대표자 논의가 이뤄진 뒤,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인다면 25일 열릴 정기 학운위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찬반 의결을 진행한다. 정기 학운위에서 과반의 찬성이 나올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시 학운위 이후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학소위는 임시 학운위 전까지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소위 측은 “기구 존속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을 모아 학운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기간 도서관 앞 드라마 촬영 70db 넘는 소음에 불편 호소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국제】 지난 7일, 중앙도서관에 서의 드라마 촬영으로 열람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소음 문제로 불편을 겪었다.

드라마 촬영은 7일 오후 5시부터 새벽 4시까지 11시간 가량 중앙도서관 정문과 사색의광장에서 진행됐다. 촬영진은 촬영 시간 내내 해당 장소에 머물렀다.

당시 촬영으로 중앙도서관 정문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구역은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백여 명이 넘는 인원이 촬영에 참여했다. 이곳에서 드라마 속 등장하는 인물들이 시상식에 참여해 레드카펫 위를 걷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인파와 소음으로 기말고사 준비를 위해 열람실을 이용하던 학생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박수진(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5) 씨는 “다음 주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드라마 촬영 소음 때문에, 공부에 지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원재(건축공학 2025) 씨도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에서 벗어나 자리를 옮겨 공부했다”고 말했다.

학생을 향한 일부 방송 촬영 스태프의 태도도 지적됐다. 도서관 근처에 접근하려는 학생에게 고함을 치며 출입을 통제했다. 촬영이 시작되면 학생들의 통행을 멈춰 세우고 기약 없이 기다리게 하기도 했다. 김



지난 7일, 국제캠 중앙도서관 앞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예찬 기자)

씨는 “드라마 촬영 제작진들의 출입 통제가 도서관 통행에 불편을 유발한다는 점과 통행 안내가 불친절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학교 측의 촬영 사전 공지도 없었다.

이날 저녁 9시경 도서관 내부 소음을 직접 측정해 본 결과 1열람실에서 최대 71데시벨, 2열람실에서 최대 68데시벨, 로비에서 최대 78데시벨이 측정됐다. 진공청소기와 도로 소음이 70데시벨에 해당한다.

당시 도서관 건물에서는 약 500여 명의 학생이 공부 중이었다. 박씨는 “당시 2열람실 내부까지도 촬영 소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김동규(컴퓨터공학 2025) 씨도 “이어폰을 끼지 않으면 소음으로 집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1열람실 내

부까지도 고스란히 소음이 전해졌다”고 말했다.

장소 대여를 담당하는 시설운영팀은 “원래 시험 기간에 도서관 장소 대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서도 “이정재 배우의 스케줄 문제로 인해 예상 날짜보다 일주일 앞당겨 촬영을 강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전 공지와 관련해선 “보안상 촬영 스케줄에 대해 공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학생에게 가해진 일부 스태프의 태도에 대해서 시설운영팀은 “제작사 측과 협의하여 다음부터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드라마 제작사와 협의해서 학생의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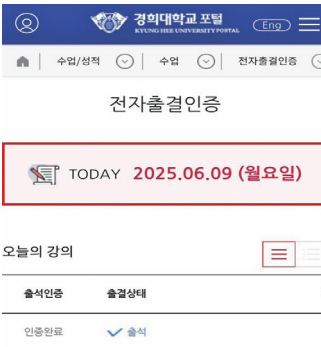
통합앱 · 인포21 연이은 접속 장애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최근 들어 통합앱과 인포21 실행에 잦은 오류가 생기고 있다. 학교 측은 오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앱 오류는 전자출결인증이 이뤄지는 수업 시작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다. 전자출결은 인포21을 통해 이뤄지는데, 통합앱은 인포21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30분 기초스페인어 수업 당시, 수강생의 모바일 통합앱 접속이 제한돼 호명 출석으로 대체됐다. 또 세계와 시민 수업을 듣는 이준섭(응용수학 2025) 씨는 “수업 시간에 전자출결 중 통합앱이 실행되지 않는 문제가 가끔 발생했다”며 “해당 수업 수강생 중 앱 접속이 안 된다는 사람이 꽤 있다”고 말했다.

통합앱 관할 부서인 스마트캠퍼스구축사업단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특정 시간(10시 30분)에 통합앱 서버 부하로 인해 네트워크 불안정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시 30분은 2교시 수업 시작시간이다. 스마트캠퍼스구축사업단 박내현 담당은 “최근 사용자 수 증가와 앱 기능 확장에 따라 서버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통합앱 구동이 불안정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근 통합앱과 인포21의 잦은 오류로 인해 전자출결에 혼선을 빚은 사례가 속출했다. (사진=인포21 캡처본)

재발 방지를 위해 스마트캠퍼스구축사업단은 동시 서버 처리 수를 늘리고 메모리 할당을 조정하는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또 해당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포21 접속 장애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2일 에브리타임에는 인포21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복수의 글이 게시됐다. 관련해 정보처 최효승 주임은 “긴급 보안 장비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하던 중 일부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접속 오류 상황을 인지하고, 장애 원인을 파악하여 즉각적인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최 주임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작업 절차를 세분화하고 잠재적 장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정보주체(학생·학부모 등)편

교육부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SNS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해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 갖기!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줄임말,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 서비스나 플랫폼*을 의미

1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설정하기

SNS 프로필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는 '친구에게만' 또는 '비공개' 설정해요.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등

2 비밀번호 설정은 8자리 이상 복잡하게!

비밀번호는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8자리 이상 설정해요.

3 이중 인증(2FA)으로 두 번 확인

SNS로 로그인 할 때는 생체인증 또는 모바일OTP를 활성화해 로그인 보안을 강화해요.
* 2FA: Two-Factor Authentication의 줄임말, 사용자 인증을 할 때 두 가지 서로 다른 인증요소를 요구하는 보안 기법

4 위치 정보 보호

사진 업로드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도록 설정해요.

5 의심스러운 링크 클릭 주의

알 수 없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나 링크는 클릭하지 않기!

6 프로필 및 배경사진 관리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진은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지 않기!

7 SNS 앱 권한 관리

위치, 마이크, 카메라,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접근 권한은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권한만 허용해요.

8 자동 로그인 체크 해제!

SNS에서 자동으로 로그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도록 설정해요.

9 계정 접속 기록 점검

로그인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의심스러운 기기나 위치에서 접속한 기록이 없는지 점검해요.
로그인시 알림가능 ON 새로운 기기 로그인 알림 ON

10 불필요한 정보 올리지 않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은 SNS에 업로드 하지 않아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친구 요청이나 팔로우는 받지 않아요.

4 종합

소통간담회, 반복되는 민원…해결은 여전히 미지수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서울】 지난 2일 이번학기 소통간담회가 법학관 401호에서 열렸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서도 이전에 나왔던 안건이 해결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발의됐다.

건물 명칭 변경 2년 전부터 건의 변화는 '아직'

자율전공학부 이세희(자율전공학 2024) 학생회장과 문과대 양우혁(응용영어통번역학 2021) 학생회장은 건물 명칭 변경을 재차 건의했다. 자율전공학부에서 사용하는 구한의원 건물과 문과대 옆 구이과대 동관 건물이 명칭으로 인해 혼란이 빚어진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신입생 혼란, 외부인 위치 오인, 택배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구)한의원, (구)이과대 건물 개칭은 2023학년도 1학기 소통간담회서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된 안건이다. 이에 지은림 서울 학무부총장은 “자율전공학부 문패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들은 해당 해결책이 건물 혼동 및 건물 위치 오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물 명칭 변경에 지 부총장은 신중한 의견이다. 지 부총장은 “다양한 쓰임이 있는 공간이기에 하나의 이름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건물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학생들은 소통간담회에서 건물 명칭 변경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소통간담회 이



문과대 양 학생회장은 2년 전부터 건의한 구이과대 동관 건물 명칭에 대해 발의했다.

(사진=김민영 기자)

후 우리신문과 인터뷰한 학무부총장실은 “건물명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와 해결방법을 본부에 말해주길 바란다”며 “관련 부서와 즉각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

누수, 연습실 부족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 산적해

이날 발의된 오비스홀 누수 문제, 음대 연습실 부족 문제, 스페이스21 및 무용학관 악취 문제,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 문제 또한 앞선 소통간담회서부터 수차례 발의됐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관

련은 “건물 리모델링이나 증축은 단순히 한 부서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현재 해당 사안들은 기본 계획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부서와의 협의, 예산 배정, 실시설계, 입찰 등의 여러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비스홀 천장 누수 문제에 총무관리처 한덕영 처장은 “로비 쪽 천장고가 높아 해결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금번 여름방학에 보안을 완료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스페이스21 및 무용학관 악취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악취 점검을 했으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면서도 “우리학교가 지역 꼭대기에 있어서

기압이 낮을 때 냄새가 멈춰있을 수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관리팀은 스페이스21 건물에 냄새 방지 시설 트램을 설치했으나 학생들은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23학년도 1학기 소통간담회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음대 연습실 부족 문제도 재차 건의됐다. 음대 소재희(작곡과 2021) 학생회장은 “지난 2년간 별동 증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며 “이 사안을 시급한 과제로 받아들여 시일 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처장은 “본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현재 기본 계획 단계에 있으며 점차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대나 악대 증축과 같은

사안은 단과대학과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대 송기휴 행정실장은 “현재 조감도는 마련됐지만, 증축을 위해 허가, 세부적인 계획,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장 공간을 늘리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연습실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여 예약방식과 이용시간 조정을 통해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최희섭 행·재정부총장은 소통간담회를 “학생들과 대학 행정 간에 좋은 소통 문화”라 평가했다. 이어, “학생들의 문제제기와 건설적인 비판에 감사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아젠다들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

배움과 휴식의 융합, 런케이션...첫 실험에 14명 참가

제주와 영암서 사회혁신학기제 진행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최근 여가와 학습을 결합한 새로운 활동인 '런케이션(learning+vacation)'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 관광을 넘어 여행 지역을 깊게 이해하고 체험하는 교육관광의 개념이다. 런케이션이 주목받는 이유를 알아보고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 '사회혁신학기제' 참가자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봤다.

배움과 휴식의 융합 '런케이션' 뜬다

휴양과 학습을 결합한 '런케이션'이 뜨고 있다. 런케이션이란 '배움'을 뜻하는 '런(learn)'과 '휴양'을 뜻하는 '베케이션(vacation)'을 합친 신조어다. 학교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장기간 체류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휴식 또한 즐길 수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일찌감치 런케이션에 관심을 갖고 적극 유치하고 있다. 제주도, 전남 영암군, 강원도 속초 및 횡성 등 여러 지역이 런케이션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지난 4월 제주도는 향후 5년간 2,500억 원을 투입해 런케이션을 활용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본격 가동할 계획을 밝혔다.

이후 작년 7월 우리학교는 제주대와 런케이션 활성화 및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런케이션을 통해 학생수 부족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다. 또 영암군청은 우리학교와 '사회혁신스쿨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리학교에 1,500만 원 상당의 예산 지원과 한옥 스테이, 조리실 등 공간을 지원했다.

이에 우리학교는 올 1학기부터 런케이션 프로그램 실행에 나섰다. '사회혁신학기제'라는 이름으로 ▲제주 신흥1리 ▲제주 대정읍 ▲전남 영암군에서 진행했다. 총 14명의 학생이 이를 수강하며 전공선택(또는 일반선택) 6학점과 교양 9학점을 포함한 총 15학점을 인정받았다. 참여 학생들은 ▲기획팀 ▲영상팀 ▲디자인팀 ▲조리팀으로 팀을 구성해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했다.

제주서 특산물로 제품 제작도 지역 홍보에도 이바지해

제주 신흥1리에서 학생들은 특산물인 굴로 다과를 제작하고 이를 홍보했다. 이들은 제주도청으로부터 버려지는 굴껍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미션을 받았다. 학생들은 굴껍질에서 나오는 과즙을 활용한 잼을 사용해 다과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고안했다.

아이디어가 생기면 바로 실천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지역 시장과 지역 농가를 방문했다. 시장에서 떡가루를 사 오고 굴 농장에서 굴껍질 과즙으로 만든 잼을 구매와 다과를 만들었다.

이들은 또 효과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의 스킨십을 갖는 방법을 택했다. '가가호호 이사떡'이라는 상품명으로 지역 주민의 집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신흥리의 특징적인 요소인 굴밭, 유채꽃, 동백마을 디자인을 활용한 스텀카프와 신흥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담은 컵 및 종지 그릇 등을 신흥1리 회관과 주민들의 가정집을 방문해 증정하기도 했다.

이번 사회혁신학기제로 제주도를 누빈 권유진(컨벤션경영학 2021) 씨는 제주도 가정집을 예고 없이 방문해 주민과 한 끼를 함께했다고 한다. 또한 제주 지역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 주민 생각을 듣기도 했다. 대뜸 다가가는 게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프로젝트를 위해 명함을 돌리고 먹을거리와 같은 선물을 나눠주며 자연스럽게 낯선 이들과 가까워졌다. 권 씨는 이번 경험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사람을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암에선 지역 브랜딩 '기의 고장'에 아이슬란드 이미지 결합

전라남도 영암군서는 영암군청으로부터 '지역 브랜딩'이라는 과제를 받았다.

학생은 '기의 고장'이라는 영암군의 슬로건이 북유럽의 '청정 지역' 아이슬란드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점을 떠올렸다.

이에 '아이슬란드 공기캔' 사례에 영감을 받아 영암군 월출산의 기를 담은 '기-캔'缶즈를 제작했다. 해외 기획팀과 영상팀 학생들은 캔뿐만 아니라 관련 키링, 스티커, 티셔츠 등缶즈를 제작하고 판매했다. 제작 과정과 월출산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제작했다.



'모솔로우' 카페를 학생들이 운영하는 사진.



영암군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가 열려 학생들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개발한 메뉴를 시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



굴껍질을 활용해 독자적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제주도서 성과발표회가 열려 스카프, 개발한 메뉴 등을 전시한 플리마켓 사진. (사진=우대식 교수 제공)

영암 한옥 스테이 카페에서 판매할 메뉴도 개발했다. 여기서는 지역 주민의 도움이 빛났다. 학생들이 영암을 방문한 4월은 지역 특산물인 무화과와 대봉감 제철이 아니었는데, 지역 농가의 도움으로 이를 해결한 것이다.

조리팀 홍성현(외식경영학 2019) 씨는 "무화과와 대봉감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어 큰 고난에 봉착했지만, 지역 내 유일하게 무화과를 냉동시키는 농가의 도움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무화과 떡케이크와 대봉감 판나코타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런케이션, 지방소멸 대응에 적합 학교, 관련 프로그램 확대 예정

런케이션은 최근 사회 문제로 두드러진 '지방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실제 이번 사회혁신학기제에서 학생들은 올해 1명의 입학생을 받은 서귀포시 흥산초등학교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학생과 체육 활동, 진로 탐색 강의 등의 여러 영상을 제작해 SNS에 게재한 것이다.

또 학생들은 제주 대정읍의 마을 여행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추사 김정희 유배지 등 지역 내 숨겨진 명소를 방문해 독자적인 마을 여행 프로그램 제작하고 마을 여행사에 기획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수영(연극영화학과 2023) 씨는 "학교에서 시행한 프로젝트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여러 학교로 확대돼 장기적으로 지역과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런케이션 확대 예정 "지방소멸 막기 위해 어디든 갈 것"

우리학교는 이번에 시작한 사회혁신학기제로 시작한 런케이션 프로그램을 문제해결중심 프로그램인 PBL(Problem-Based Learning)과 연계해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혁신학기제 실행을 주도한 후마 우대식 교수는 "올해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인 만큼 체계적인 부분에서 부족했던 점이 있어 학생들의 활동 여건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제주도 및 영암군에 그치지 않고 지방소멸 대응이 필요한 지역 어디든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창간 70주년 특집 - 나는 주간교수다 ⑥

‘형식, 취재, 관계’, 학생기자에 필요한 세 가지 기본기 대학언론의 신뢰 받기? “디테일을 소홀히 않는 것”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남윤재, 2020.05~ 주간
(커뮤니케이션학)

창간 70주년을 맞아 대학주보는 역대 주간 교수들을 만나, 그들이 마주했던 시대와 학생기자들과의 기억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마지막 순서로, 2020년 5월부터 신문방송국 국장을 맡아 어느덧 6년째 주간을 이어오고 있는 남윤재 교수를 만났다. 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그에게, 지금 대학주보가 서 있는 자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물었다.

내용 이전에 ‘형식’ 지켜야
발로 뛰는 기자정신도 필요해

남윤재(커뮤니케이션학) 교수가 학생기자들에게 줄곧 강조해 온 것은 대단한 특종이나 대단한 논조보다도, 오히려 단어 하나, 숫자 하나, 문장 하나의 정확성이다. 실제로 조판 현장의 남 교수는 기사 하나하나의 문장과 인물 표기 등을 직접 검색하며 꼼꼼하게 확인하고, 캡션 한 줄에도 신중함을 요구하는 ‘디테일형’ 주간이다.

재학 OB인 이동건(대학주보 70기)은 “국장님이 단어 하나하나 사전 찾아보며 쓰라고 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마감 직전까지 사소한 오타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 습관은, 학생기자들에게 기본기를 체득시키기 위한 신념에 가깝다. 남 교수는 수년간 조판에 참여하며 겪었던 오류 사례를 떠올리며 “사람 사진이 잘못 들어가거나 책 제목이 틀리는 사소한 실수가 기사 전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학생기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로는 ‘앉아서 하는 취재’를 꼽았다. 에브리타임이나 커뮤니티에서 퍼진 갈등을 정리하는 식의 보도는, 사실상 이미 알려진 사실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남 교수는 “수만 명이 있는 경희대학교라는 공동체 안에는 매일 같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벌어진다”며 “그 이야기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듣고 글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학생기자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문화가 정착되면서, 이메일이나 간접적인 정보



남 교수는 대학주보의 발행 주기인 '2주에 한 번'을 언급하며, “그 주기를 감안했을 때, 한정된 지면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지수 기자)

수집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그는 “취재가 주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숨겨진 이야기나 주목받을 만한 기사들을 만들 가능성도 줄어든다”며 “방법은 간단하다. 좀 더 발로 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편집장이 각 기자들에게 취재처를 배분해, ‘밖’에서 기사를 묻고 들어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단순히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이야기를 찾아오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주목받는 기사’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남 교수는 2주마다 돌아오는 대학주보의 발행 주기를 언급하며, “그 주기를 감안했을 때, 한정된 지면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신과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해 “우리 신문은 단신 하나가 사건까지 포함해 반편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짧고 명료한 기사로 더 많은 학내 소식을 담는 편이 오히려 독자들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우리 신문은 호흡이 너무 길다”고 짚으며 “오프

라인 신문은 12면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알차게 써야 한다”며 “지면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독자의 관심을 얻기 위한 길은 ‘더 짧고, 더 많이’ 담는 방식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한두 면의 기획 기사를 제외한 기사는 신문의 체급에 맞게 호흡을 조절하고, 지면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자의 기본은
관계 맺음과 신뢰 형성

기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 무엇인지는 질문에, 남 교수는 망설임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이라고 답했다. “기자라는 명함 하나만으로 누군가에게서 본심이나 사실, 그리고 그 너머의 숨겨진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그런 신뢰는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과정 속에서 쌓여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좋은 기사’는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남 교수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며, “지금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훗날 기성 언론인이 되든, 또 다른 전문 분야에 종사하게 되든 결국은 모두 개인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다. 학생기자라는 위치는 단지 대학 언론의 역할을 넘어서, 관계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학생 기자들이 대학주보에서 경험하는 관계 맺음의 경험은 비단 ‘기자’를 꿈꾸는 이들에게만 유용한 것은 아니다. 남 교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 관계망이고, 그런 튼튼한 관계들이 쌓이면 그게 소셜 캐피털(사회 자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신뢰를 형성해 가는 그 일련의 경험들이 결국 더 좋은 기사를 만들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설명이다.

신문방송국 국장을 맡아온 지난

6년을 돌아보면, 남 교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학생기자들의 이야기가 교내에서 들려올 때’를 꼽았다. 보직자들이 “이번 편집장은 참 당돌하더라”, “누가 직접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건넨 말 한마디, 불편했지만 인상 깊었다는 반응들이 쌓일 때, 남 교수는 대학주보가 학교 안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느낀다고 했다. 그런 말들이 들려오면 “속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뿌듯함을 느낀다”며 웃었다. 반면, 아무런 반응도 없이 조용한 상황은 주간으로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냥 예산만 쓰는 기관처럼 여겨질 수 있다”며, ‘불편함조차 없는 침묵’이야말로 대학 언론이 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짚었다.

남 교수의 바람은 학생기자들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음들이 누군가의 귀에 닿아 또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 그렇게 이어지는 순환 속에서, 대학주보도 살아 숨 쉴 수 있다.

“다신안한다” 마음이지만 오늘도 기사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편집실을 지키는 사람들, 2025년 현역기자의 기록과 고백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전 편집장은 한 학기 만에 강제 졸업, 두 명의 팀장은 한 명은 입대, 한 명은 고시 준비로 종적을 감췄다. 이쯤 되면 “설마 OB 선배가 돌아와 맡아주시겠지”라는 희망 섞인 예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덜컥 편집장이 된 건 뉴스팀장 72기 하시언(미디어학 2023)이었다. 하시언은 “처음 편집장이 됐을 때 데스크는 없고 기자도 총 9명이었다”며 “나보다 나이 많은 기자에게 어떻게 업무를 지시해야 할지, 마감을 안 지키거나 이상한 짓을 하면 뭐라고 혼내야 할지, 아이템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든 기준을 혼자 정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고 학기 초의 혼란을 떠올렸다. 그럼에도 그가 아직 도망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 각자 1인분씩은 꼭 하는 정기자들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있는 수습시절 성장하는 기자들

모든 기자의 시작은 같았다. 혼나고, 헤매고, 울기도 하는 수습 시절. 73기 원희재(원자력공학 2021) 역시 마찬가지였다. ‘적응이 느렸다’던 원희재는 수습 시절 당시 편집장이었던 72기 조병연(프랑스어학 2018)에게 질문지를 검토받아 “중학생 수준”이라는 혹평을 받았고, 그날 밤 기자들이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에는 “행정실에 중학생 수준의 질문은 하지 마라”는 전체 공지가 올라갔다.

기자들과 떠난 첫 세미나에서 “모두가 나를 중학생 수준으로 기억할 것 같았다”던 원희재는 “오히려 많이 혼나고 기죽었던 경험을 초석 삼아 기사 쓰기와 취재 방향을 잡고 있다”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설명했다.

입사 전에는 올 A+로 정경대 차석을 거머쥔 정도로 노력과였던 김규연(무역학 2020). 대학주보에 들어와서는 “혹시 수업 너무 빠져서 F 맞는 거 아냐”는 걱정을 들을 만큼, 주보에 올린다는 ‘무지막지’ 열정이 있었다. 기자칼럼인 세시봉 집필 기회를 동기 중 한 명이 먼저 얻게 되자, 김규연도 열심히 하고픈 마음에 “나도 오피니언 쓰고 싶다”고 편집장에게 말하다 눈물이 조금 흘렸다. 우는 김규연을 두고 편집장과 동기

기자들은 배를 잡고 웃어댔고, 이 장면은 순식간에 “규연이 끼이끼이 울었다”는 전설로 포장되어 회자되고 있다. 수습 시절, 동기에게서 받은 자극은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기자로서의 내면이 자라나던 작은 전환점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대학주보는 기본적으로 ‘취재팀 중심’ 체제다. 그 구조 안에서 “어떻게든 팀에 끼여보자”는 마음으로 두 학기를 버틴 미디어팀 73기 박서연(시각디자인학 2023)은, 지금은 유일한 데스크 인원으로 편집장 하시언을 든든히 보조하고 있다. “양복 3시간 걸려 편집실에 출근한다”는 휴학생 박서연이 대학주보의 중심에 스며든 건, 단 한 번의 우연한 호출 덕분이었다. 조판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밤 8시, 전 기획팀장 72기 김륜희(정치외교학 2023)가 국제캠 교내 자동 제세동기 배치 여부를 “지금, 당장” 알아봐야 한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그날, 유일한 취재팀 동기는 연락두절이었고 결국 미디어팀 소속이던 박서연이 캠퍼스를 누비며 직접 자동 제세동기를 찾아 나섰다. 그날 이후 박서연이 취재팀과의 경계선을 조금씩 허물며, 자신의 역할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마감 압박과 발제 지옥에도 중도이탈자 없어

기자들이 가장 고달픈 것은 다름 아닌 마감 압박이다. 정해진 기한 안에 팩트를 담은 기사를 완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기자들을 쉴 틈 없이 몰아붙였다. 73기 추찬호(철학 2021)는 이 사이에서 가장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다. 세미나에서 제기된 ‘현장 취재 중심’의 대학주보 기조를 따르자니, 반복되는 행정실의 “담당 선생님이 자리에 없으셔서 메일로 연락해 주세요” 답변에 어느새 다시 서면 위주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은 많이 소요됐고, “14일이 주어지는 조판 기간 동안 13일을 기다린 경험도 있다”고 털어놨다. 추찬호는 현장 취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모쪼록 빠름과 정확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대학의 학사일정은 해마다 비슷하게 반복된다. 이는 곧, 기사 소재 역시 반복된다는 뜻이다. 매주 월요일 열리는 아이템 회의가 돌아올 때면, 발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난다. 발제 능력을 키우고 싶어 하는 이환희(미디어학 2021) 역시



양캠 기자들이 마지막 조판을 앞두고 회의를 하고 있다. (위=서울캠 편집실, 아래=국제캠 편집실) (사진=이지수 기자) (사진=조병연 기자)

아이템에 대한 욕심과 책임 사이에서 매번 고비를 넘기고 있다. 기자들의 모든 활동은 늘 학업과 함께다. 쉽게 말해, 개인 시간은 환상이다. 유일의 공대 기자인 원희재는 최근 들어 “기말시험은 어디 가고 기사만 쓴다”는 푸념을 늘어 놓는다. 대학주보 기자의 시간표에는 ‘공강’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MBTI가 J 유형이라는 73기 김유경(정치외교학 2024)도 마찬가지다.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워도, 2주 단위 마감 앞에서는 매번 무너지고 만다. 정해진 일상에 변수가 너무 많은데, 그 변수가 전부 대학주보다.

출발은 불안했지만, 중도 이탈자 없이 한 학기를 보내고 있다. 놀라운 일이다. 하시언은 “아무리 편집장이어도 나이 어린 동생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지적하면 기분 나쁠 만도 한데 다들

받아들인다”며 “정기자 수가 없어 그만큼 기사를 2~3개씩 쓰는 게 당연시된 웃픈 상황인데도 불평 불만 없이 묵묵히 해낸다는 점에서 고맙다”고 말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각자의 갈림길 앞에서

기자가 되겠다고 들어왔지만, 돌아서며 다짐하는 건 ‘다신 안 한다’는 마음. 대학주보에선 익숙한 이야기다. 이들 역시 갈림길 앞에서 각자의 방향을 골랐다. 권도연(중국어학 2024)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내 기사를 읽고, 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다”며 기자의 꿈을 키우고 있다. 추찬호는 “매번 마감에 치이고 소재에 쪼들리다 보니 이걸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핀테크 관련업으로 희망 진로를 바꿨고, 다음

학기에 파이썬을 배우러 떠날 예정이다. 하지만 “치열하게 버텨온 1년 반의 시간이 절대 헛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진로는 정하지 않았지만 “이 경험은 어디서든 쓸모 있다”고 말하는 김유경과 “사람 만나고 글 쓰는 건 기본 소양이기에 무조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환희도 있다.

호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마감에 쫓기면서도 결국 발행일을 지켜낸 책임감,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외로운 순간들을 견디며 스스로 일의 주인이 되었던 경험. 대학주보라는 작지만 치열한 편집실은 누군가에게는 꿈을 시험해 보는 무대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른 길을 향한 디딤돌이었다. 진로가 무엇이든, 기사를 계속하든 하지 않든,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결국 모두를 ‘조금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야구] [축구] [농구]

2025 고향컵 종료… 지리, 자율전공, 치과대학 우승컵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조한음 기자 jhn0102114@khu.ac.kr

【서울】 지난 2일 2025 고향컵이 야구, 축구, 농구 결승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각 학과와 단과대 소속 동아리가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야구에서는 지리학과 ‘지오베이스’, 축구에서는 자율전공학부 ‘에미넌스’ 농구에서는 치대 ‘유닛’이 우승을 차지했다.

[야구-홈런으로 우승까지]

지난달 31일, 대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는 지리학과 ‘지오베이스’와 정경대 ‘구리스’가 맞붙었다. 지오베이스는 구리스를 상대로 8-1로 승리하며 최종 우승을 거머쥘었다.

지오베이스는 3회 초, 한호성(지리학 2024) 선수의 홈런을 시작으로 경기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후 안정적인 수비와 추가 득점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승리를 확정 지었다.

지오베이스 주장 김민수(지리학 2021) 씨는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는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끝까지 집중한 팀원에게 고맙다”는 소감을 밝혔다. 선후배의 우승을 직관하러 대운동장을 찾은 이주영(지리학 2022) 씨는 “결승이라

그런지 사람도 많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축구-10년만에 되찾은 왕좌]

지난 2일 대운동장에서 자율전공학부 ‘에미넌스’와 경영학과 ‘한발’이 결승전을 치렀다.

10년 만에 다시 한번 우승을 노렸던 에미넌스와 지난해 우승팀 한발의 경기였던 만큼 큰 관심이 쏠렸다. 각 팀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학생들과 일반 관중 등 100명 이상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며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많은 이목이 쏠린 경기였던 만큼, 경기 내용도 극적이었다. 전반 시작 5분 만에 한발이 선제골을 넣어 앞서 나갔다. 하지만, 후반전에 들어서며 에미넌스가 동점 골을 넣었고, 정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승부가 나지 않아 경기는 연장으로 이어졌다.

연장 후반 종료 5분 전, 에미넌스 신우진(경영학 2024) 선수의 패스를 받은 김동현(글로벌리더학 2020)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렸다. 이 극적인 역전 골로 경기는 2-1, 에미넌스의 승리로 끝났다.

에미넌스 주장 백성현(자율전공학부 2021) 씨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동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5분을 남기고 역전 골로 승부를 결정지은 것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2025 고향컵서 야구에 지리학과 ‘지오베이스’가, 축구는 자율전공학부 ‘에미넌스’가, 농구는 치대 ‘유닛’이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이서현 기자)

[농구-준우승의 아쉬움을 털고]

같은 날 네오관 농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는 치대 ‘유닛’과 호관대 ‘무브먼트’가 맞붙었다. 유닛이 51-35로 승리하며 지난해 준우승의 아쉬움을 완벽하게 씻었다.

무브먼트의 첫 득점으로 경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1쿼터는 15-7로 유닛이 앞선 채 마무리됐다. 2쿼터 또한 유닛이 앞서는 흐름이 계속됐

고, 3쿼터에 점수를 벌린 유닛은 51-35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유닛 주장 염승훈(치의예 2022) 씨는 “작년 고향컵과 고향체전 준우승에 머물러 아쉬움이 많았는데, 올해는 초반부터 열심히 훈련했고, 승리를 거둘 수 있어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농구 결승전을 끝으로 2025 고향

컵의 모든 일정이 끝났다. 고향대회 운영위원장 김민수(지리학 2021) 씨는 “모든 종목에서 많은 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 감사하다”며 “일정 조율과 대회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사고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농구장과 대운동장 시설이 열악해 충분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의학, 한류, 동사의 의미…출판문화원 신간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우리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신작 ‘한류를 읽는 안과 밖의 시선’, ‘노비노 건강법’, ‘동사 수업’ 이 출간됐다. 세 권의 책을 소개한다.

[노비노 건강법](이재동 외 저)

한의학은 몸을 하나의 소우주로 바라보고, 같은 증상이나 질환도 에너지의 생성, 순환 등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린다. 책의 저자인 우리학교 한의대 이재동(한의학), 이수지(침구), 홍예진(침구) 교수는 한의학을 통해 내 몸의 맞춤 생활 건강법을 찾을 것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는 한의학을 통해 식생활, 운동, 수면 관리, 다이어트 등의 실생활 문제에서 ‘나를 살리는 에너지 플랜’을 찾는 방법을 조언한다.

그러나 이 책이 비단 한의학적 조언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의

학과 서양의학의 차이, 한방치료법의 종류와 같은 한의학에 대한 흔한 궁금증에 대한 답도 함께 담겨있다. 더불어 근골격계, 신경계, 안과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에도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해 실제적인 조언을 담았다.

[2025 K-콘텐츠: 한류를 읽는 안과 밖의 시선](안송범 외 저)

이 책은 세계화의 가장 구체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또 실감토록 해주는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분석한다. <파묘>, <눈물의 여왕>, 뉴진스의 <Supernatural>, <서진이네 2>, <스텔라 블레이드>, <세이렌: 악당과 계약가족이 되었다>를 한국, 외국 필진이 분석 및 평론한다.

이중 작년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K-컬처 스토리 콘텐츠 연구소의 조한기 학술연구교수는 ‘괴담의 미학’이라는 키워드로 해석한다. 드라마는 비교적 현실



차례대로 『노비노 건강법』, 『한류를 읽는 안과 밖의 시선』, 『동사 수업』이다.

(사진=출판문화원 제공)

적인 배경과 상황 속에서 비현실적 등장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이들이 비일상적인 상황에 빠지도록 한다. 이런 설정은 시청자가 그것이 비현실적인 상황임을 알더라도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만든다.

뉴진스의 <Supernatural>에 대한 평가도 눈에 띈다. 일본 불교대학종합연구소의 야마모토 조호 촉탁연구원은 이 음악이 글로벌 K-팝의 새로운 고지를 만들어 냈다고 평했

다. 상업적, 음악적으로 모두 큰 혁신을 이뤄낸 데에 더한 것이다. 기존 한정판 굿즈 판매, 앨범 판매에 크게 의존했던 경향성에서 벗어나 틱톡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댄스 챌린지에 참가하고 곡을 공유하면서 곡이 자연스레 확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음악적으로는 강력한 드럼 비트와 베이스라인을 중심으로 했으면서도, 신시사이저를 잘 활용해 세련된 음

색을 만들어냈다. 신시사이저는 음향으로 변환될 수 있는 오디오 신호를 생성하는 전자 악기다.

[동사 수업](이병수 저)

후마 이병수 교수의 『동사 수업』은 이색적인 구성을 가졌다. 이 책은 ‘사랑하다’, ‘존경하다’, ‘탐구하다’와 같은 ‘동사’에 초점을 맞춰 그와 관련된 고전의 내용과 함께 동사의 철학적인 의미를 생각해본다.

저자는 동사 ‘사랑하다’를 살펴보기 위해 플라톤의 『향연』을 함께 살핀다. 그에 따르면 사랑은 너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며,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는 사랑이 현재의 과업이고 숙명이며, 오늘날의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열쇠라고 강조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감, 사랑, 행동, 표현, 열정과 관련된 동사에 대한 새롭고 깊은 시각을 접할 수 있다.

저자는 고전을 통해 동사들에 관한 철학적 물음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태도와 사유의 방식을 성찰하게 만든다.

농구부 홈 2연전 1승 1패, 목표 4위까지 건국대 · 중앙대 넘어야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국제】농구부가 최근 홈 2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하며 ‘2025 KUSF 대학농구 U-리그’ 6위에 랭크됐다.

지난달 29일 명지대를 상대로 64-61로 승리를 챙겼지만, 지난 6일 연세대에 71-90으로 패배했다. 다만, 중국 Sias대학 초청 대회로 해외에 다녀온 피로도를 감안하면, 귀중한 1승을 챙긴 셈이다.

대학농구 U-리그는 정규시즌 8위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우리 학교는 지난해 14경기에서 8승 6패를 기록하며 6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다만, 3위 건국대를 상대로 8강에서 76-77로 패하며 4강 진출에는 실패했다.

현재 순위는 6위지만, 4위를 노려 불만하다. 고려대와 연세대가 나란

히 9경기 전승을 기록 중이고, 그 아래 성균관대가 7승 2패 단독 3위로 3강 구도가 잡혔다. 우리 학교는 4위 중앙대, 5위 한양대와 같이 5승 4패를 기록 중이다. 순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시즌 종료까지는 7경기가 남았다.

올해 목표는 ‘결승 진출’이다. 김현국 감독은 “작년에는 4학년 없이 경기했기 때문에 전력에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올해는 꼭 결승까지 진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즌 중반이 넘어가면서 변수는 역시 부상이다. 김 감독의 걱정은 무엇보다 에이스 포워드 배현식(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의 부상이었다.

농구부는 배 선수가 지난 4월 건국대전에서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위기를 겪었다. 배 선수는 “부상 이후 아직 100%는 아니지만 재활을 꾸준히 해서 70% 정도 올라왔다”고 전했다.



농구부가 최근 홈 2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으며 올해 목표는 ‘결승 진출’이다.

(사진=농구부 프런트 제공)

그래도 최근 승리한 명지대전에서 30분 35초를 소화하며 13득점 10리바운드 4어시스트 활약으로 컨디션을 되찾고 있다. 연세대전 역시 27분 55초를 뛰며 9득점 9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올렸다. 돌아온 에이스에 더해 선수들이 골고루 골 맛을 보고 있다. 지난 연세대전에서는 패

했지만, 배 선수에게만 득점이 쏠리지 않고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다.

향후 분수령은 오는 11일에 열리는 건국대전, 9월에 있을 중앙대전이다. 순위가 맞물려있는 팀과의 경기를 확실히 잡아야 플레이오프에

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 선수는 “초반에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못 잡아서 지금부터는 모든 경기가 중요하다”며 “당장 있는 건국대전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있어 중요한 경기고, 남은 경기에서 최대한 패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축구부 시즌 첫 4경기 무패 “정규리그 무패 우승 목표”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국제】축구부가 ‘2025 KUSF 대학축구 U-리그’ 4권역에서 첫 4경기 2승 2무를 거두며 6개 대학 중 2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달 18일 강원한라대와의 첫 경기 2-2 무승부를 시작으로 용인

대전 2-2 무승부, 전주대전 1-0 승리, 광운대전 2-1 승리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승점 9점을 쌓은 1위 울산대와의 승점 1점 차다.

2020년대에 들어와 축구부의 성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정규리그 성적이 좋은 팀끼리 맞붙는 ‘왕중왕전’에 최근 4년 연속으로 나서지 못했다. 2017년부터는 4년 연속 왕중

왕전에 진출했고, 마지막 왕중왕전이었던 2020년에는 정규리그 9팀 중 3위로 진출해 4강까지 올랐던 강팀이었지만 흐름이 꺾였다.

올해는 다시 높은 곳을 바라본다. 주장 이호연(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올해 U-리그 정규리그 무패 우승과 오는 추계대회 우승이 목표”라며 “왕중왕전에 진출해 부상

자들과 함께 왕중왕전을 뛰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전술의 방향 아래 하나 된 뜻으로 경기하는 단합력이 초반 상승세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축구부는 5-2-3 포메이션을 사용 중이다. 양쪽 측면 수비수들이 높은 위치 선정을 통해 공격에서는 수적 우위를 만들고, 수비 시에는 10명 모두 약속된 위치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을 사용 중이다. 이 전술로 4경기에서 5골을 넣고 2실점을 내주며 +3이라는 좋은 득실을 기록 중이다.

전주대전 결승골로 팀의 첫 승을 이끈 공격수 강산(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는 “새로운 코치님들이

들어오시면서 팀을 바꾸려고 하시는 게 보였다”며 “우리 또래부터는 프로팀에도 계속 가다 보니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생겨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규리그가 10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길게 봐야 하지만, 시즌 초반인 현재 1위 울산대와 2강 구도를 형성했다. 승점 차는 1점뿐이기 때문에 오는 13일 열리는 울산대와의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1위로 올라설 수 있다. 이 선수는 “리그 1위를 다투고 있는 만큼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기를 통해 1등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 선수들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10 종합

기말고사 맞아 ‘식사일반’ 학식 지원 조식 · 점심 무료 또는 할인 제공

서민주 기자 smj13221@khu.ac.kr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학식 지원 행사 ‘식사일반(食匙一飯)’이 양캠퍼스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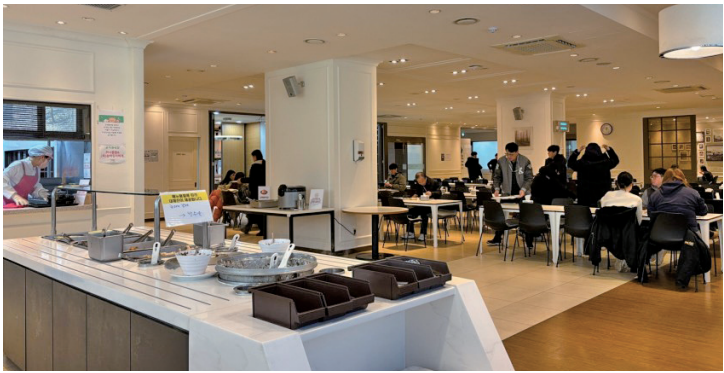
지원되는 학식은 해당 기간 조식과 점심이다. 각각 ‘0원의 아침’과 ‘천원의 점심’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 먼저 양캠퍼 조식은 ▲푸른솔 학생 식당(서울), ▲학생회관 학생 식당(국제)에서 각각 진행된다. 양캠퍼 각 선착순 300명씩, 사흘간 총

900명에게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기존 운영되던 ‘천원의 아침밥’에, 기부자가 학생당 천 원을 부담하며 무료로 아침 식사가 제공되는 것이다.

점심은 ‘천원의 점심’이라는 이름으로, ▲청운관 학생 식당(서울)과 ▲학생회관 학생 식당(국제)에서 각각 운영된다. 학생이 천원만 부담하면, 일반식(4,500원) 또는 특식(8,500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차액은 전액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양캠퍼 각각 하루 500명씩, 사흘간 총 1,500명 대상이다. 특식 제공은 국제캠은 17일, 서울캠은 18일에 이뤄

진다. 학식 지원 기금은 ▲김진상 총장 ▲김양진 교수의회 의장 ▲김도균 대외협력처장 ▲경희대 노동조합 ▲국제 대외협력처 서포터즈 ‘쿠밀리’가 부담했다. 기금은 식재료비 보조 등 식사 제공을 위한 운영 전반에 사용된다.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양캠퍼 모두 생협을 이용해 운영하는 점이 특징이다. 학교는 이를 통해 양캠퍼 동일 학생 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생협 김민화 사무국장은 “서울캠에서는 점심이 1분도 안 돼 마감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국제



이번 ‘식사일반’ 행사는 처음으로 양캠퍼 모두 생협을 이용해 운영한다. (사진=대학주보 DB)

캠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생협에 대한 만족도와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 조민재(행정학 2021) 씨는 “학식은 평소에도 저렴해서 자주 먹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 특식까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좋다”며 “시험 기간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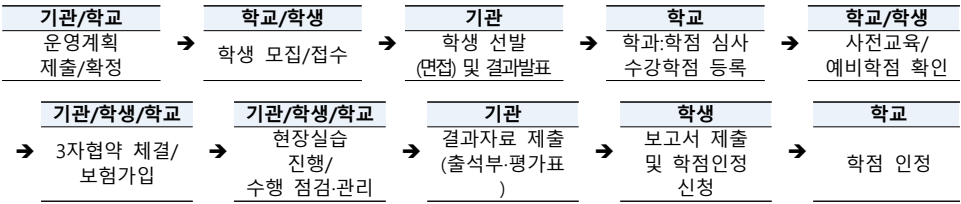
런 지원을 받으니 응원받는 기분이고, 실질적인 복지라 체감도 크다”고 말했다.

대외협력처 정이나 차장은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유하고, 더 많은 구성원이 기부에 동참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식 지원 행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시행안내

산학연계현장실습센터에서는 2025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진행절차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은 전용시스템(<http://intern.khu.ac.kr>)을 통해 이루어지며, 본 시스템을 통한 진행만 현장실습 및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

■ 실습기간 : 2025.09.01.(월) ~ 2025.12.21.(일)

■ 학생 참여기준

- 현장실습 진행하기 기준, 4개 학기 이상 이수 재학생
- 지침에 따라, 약학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무용학부는 장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 장기현장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이수자 참여 불가
- 휴학생은 복학신청 후 2차 학생신청 기간부터 참여 가능
-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
- 정규학위과정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이 허용하는 범위내 참여 가능
- 실습기관에서 선발이 완료되면, 사전교육 이수 및 3자협약 후 현장실습 진행 가능

■ 학교 지원사항

- 사전교육 시행 및 현장실습 참여학생 상해보험 가입
- 학점인정 : 실습일수 기준 3학점 단위로 학점부여, 단, 최소 1개월(20일 이상) 실습 시 학점 부여 가능

실습일수	인정학점	실습일수	인정학점
20일 이상~40일 미만	3	40일 이상~56일 미만	6
56일 이상~72일 미만	9	72일 이상	12

■ 실습기관 지원사항

-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참여학생 산재보험가입 및 필요시설·물품제공
- 실습지원비지급·직무관련교육시간(10%~25%이하)을 제외하고 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구분	기관신청	학생신청	기관선발	학과심사
1차	2025.06.09.(월)~ 2025.06.20.(금)	2025.06.26.(목)~ 2025.07.02.(수)	2025.07.04.(금)~ 2025.07.11.(금)	2025.08.11.(월) ~ 2025.08.12.(화)
2차	2025.06.30.(월)~ 2025.07.14.(월)	2025.07.17.(목)~ 2025.07.23.(수)	2025.07.28.(월)~ 2025.08.04.(월)	

■ 신청방법 :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에서 실습기관 조회 후 신청

- 전공 유관 현장실습 원칙에 따라 본인의 본전공/다전공 모집 중인 기관만 조회 가능
- 각 차수별 학생신청기간에 기관리스트 확인 가능
- 기관별 운영계획 및 모집요강을 면밀히 확인 후 지원
- 한 차수당 하나의 기관에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 문의처 : 산학연계현장실습센터 (<http://intern.khu.ac.kr>)

- 서울C (02-961-2352) • 국제C (031-201-3925)

국제 학생 식당 매출 상승 방중 운영 등 확대 논의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국제】생협이 이번 학기부터 운영을 맡은 학생회관(학관) 식당 매출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 학기부터 식당 운영이 확대될 예정이다. ▲방중 학생식당 운영 ▲국제캠 자체 메뉴 운영 ▲우아하게(양식) 코너 운영 ▲교직원 식당 석식을 운영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30일 열린 학관 식당 운영위 회의에서 논의됐다. 운영위는 학관 식당 ▲운영 주체(생협) ▲관리 감독 주체(총무팀) ▲이용자(학생·교직원) 간 식당 운영 전반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체다.

회의에서 생협 측은 학관 식당 매출이 갈수록 증가했다고 밝혔다. 생협 측이 공개한 올해 1~4월 학생회관 식당 결산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학관 식당 매출은 ▲2월 22,532,769원 ▲3월 187,602,842원 ▲4월 204,423,636원으로 매월 상승했다. 생협 김민화 사무국장은 “3월에 비해 4월 매출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올해 학관 식당 매출 향상은 긍정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매출 증가세에 힘입어 학관 식당 운영이 전면 확대된다. 우선 오는 6월부터 학생 식당을 방중에도 운영한다. 방중엔 교직원 식당만 운영했다. 또 그간 서울캠 식당(청운관·푸른솔)과 같은 메뉴를 사

용해 왔는데, 점진적으로 자체 메뉴를 편성한다. 오는 여름 방학부터 학생 식당 중 한 개 코너를 자체 식당으로 편성하고, 내년부턴 교직원 식당도 자체 편성한다. 학관 식당 김세은 영양사는 “학관 식당 코너인 ‘튼튼하게’랑 ‘푸짐하게’ 코너 중 하나를 자체 식당으로 운영하고 다음 학기부터는 이를 더 늘릴 것”이라 밝혔다.

김 사무국장이 “2학기부터는 3개 코너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양식 메뉴를 제공할 ‘우아하게’ 코너도 다음 학기부터 신설된다. 이를 위해 메뉴 개발과 인력 구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총무팀은 생협 측에게 식당 사무 환경 개선을 논의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김 사무국장은 “식당 입구에 생협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며 “직원 업무 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학정 총무관리처장은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회관 1층 커뮤니티룸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발생한 식중독 의심 사례와 관련해 생협 측이 위생 개선 조치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식당 이용자가 복통을 호소한 일이 있었는데, 조사를 담당한 기흥구청은 지난 5월 ‘식중독균 불검출’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위생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통간담회, 실천 뒤따라야 완성된다

양캠퍼스에서 열리는 소통간담회는 ‘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다. 학기마다 한 차례, 학생 대표와 교직원, 관련부서 부서장과 부총장단이 공식적으로 마주해 학내 현안을 논의한다. 다양한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학생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학교가 이를 수렴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하지만 몇 년간 지속되어 온 간담회가 형식적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안전에 여전히 같은 답변이 몇 단어만 바뀐 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지점이다.

매 학기 소통간담회에 취재를 갈 때마다, 캠퍼스 내 시설 개선, 교육 여건 향상 등 학생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문제들이 안전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학교 측의 답변은 늘 그렇듯 “검토 중이다”, “예산

과 인력 부족으로 당장 어렵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말뿐이었다.

특히 구한의원대 명칭 변경, 실습실 공간 부족, 건물 누수 등의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과제다. 그럼에도 학교는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장기 검토 중’이라는 말로 모든 요청을 유보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가 소통간담회를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아닌, 형식적 종결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이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안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그 진행 경과가 학생 사회에 공유돼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조차 진척 없이 되풀이하며, 결국 간담회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학기 열리는 소통간담회에선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똑같은 답변이 돌아오는 소모적인 자리가 되는 것이다.

민원을 듣는다는 행위 그 자체가 소통의 완결은 아닐 것이다. 요구를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소통은 무의미하다. 제도적 한계나 현실적 제약이 있다면, 그 사유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예산과 일정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실행이 어렵다면 그 어려움의 이유와 대안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태도다.

그렇지 못한 간담회는 ‘소통’이라는 이름을 빌린 일방적 통보의 자리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매 학기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해야만 하고, 그때마다 같은 답변만 들려오는 구조는 신뢰를 무너뜨린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의례적인 절차만 반복될 뿐이다.

이제는 소통간담회 방식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한 민원 수렴 창구를 넘어, 장기적인 검토와 계획이 필요한 굵직한 사안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명칭 변경, 실습 공간 확보, 노후시설 개선과 같은 문제는 사안별 로드맵을 설정해 간담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비교적 단순한 민원 사항은 상시 건의와 즉각적 피드백 체계를 통해 빠르게 해결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지금이라도 소통간담회 존재 이유를 되짚어야 한다. 간담회는 요식행위가 아닌, 대학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어야 한다. 형식적 반복에서 벗어나 실질적 개선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필요하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학생 중심 제도 보완 필요

안주하기보단 혁신을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2026학년도부터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기계공학과 등을 비롯한 일부 학과·학부가 열린 전공 유형2로 개편된다. 교육부 무전공 입학 인원 확대 방침에 따른 조치로, 우리학교 역시 단과대 및 계열 단위에서 무전공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학은 이를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이 진정한 교육 혁신의 일환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듯하다. 특히 이번엔 추가된 관광·엔터테인먼트학과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는, 기존 교육 과정이 정부에서 말하는 열린전공 유형2와 다른 부분이 없다. 다만, 기존 교육 과정이 열린전공 유형2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 상황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지원금 수혜에 걸맞은 양질의 프로그

램 개설과 교육 과정 개선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일단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열린전공을 맞닥뜨릴 한 전공 교수는 전공별 학생 유입의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한 교수는 학생들이 무전공 상태에서 자신에게 맞는 전공 과정을 잘 설계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를 표했다.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도 “최근 무전공 정원 확대 요구가 충분한 검토 없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점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지원금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해당 지원금으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무전공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스스로 탐색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는 학생 중심의 방향으로 설계 돼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번 개편은 진정한 교육 혁신이자, 학생을 위한 무전공 제도, 열린전공 유형2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양여진

만평 교육부 방침 아래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학교

교수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하시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

반성과쇄신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지난 4일 새 대통령이 취임했다. 8년 만에 다시 보는 ‘탄핵 대선’이었다. 지난해 벌어진 비상계엄의 여파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바랐다. 그런데 대선 과정을 돌아볼 때 선택자인 유권자 입장에서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80%에 육박하는 투표율마저 무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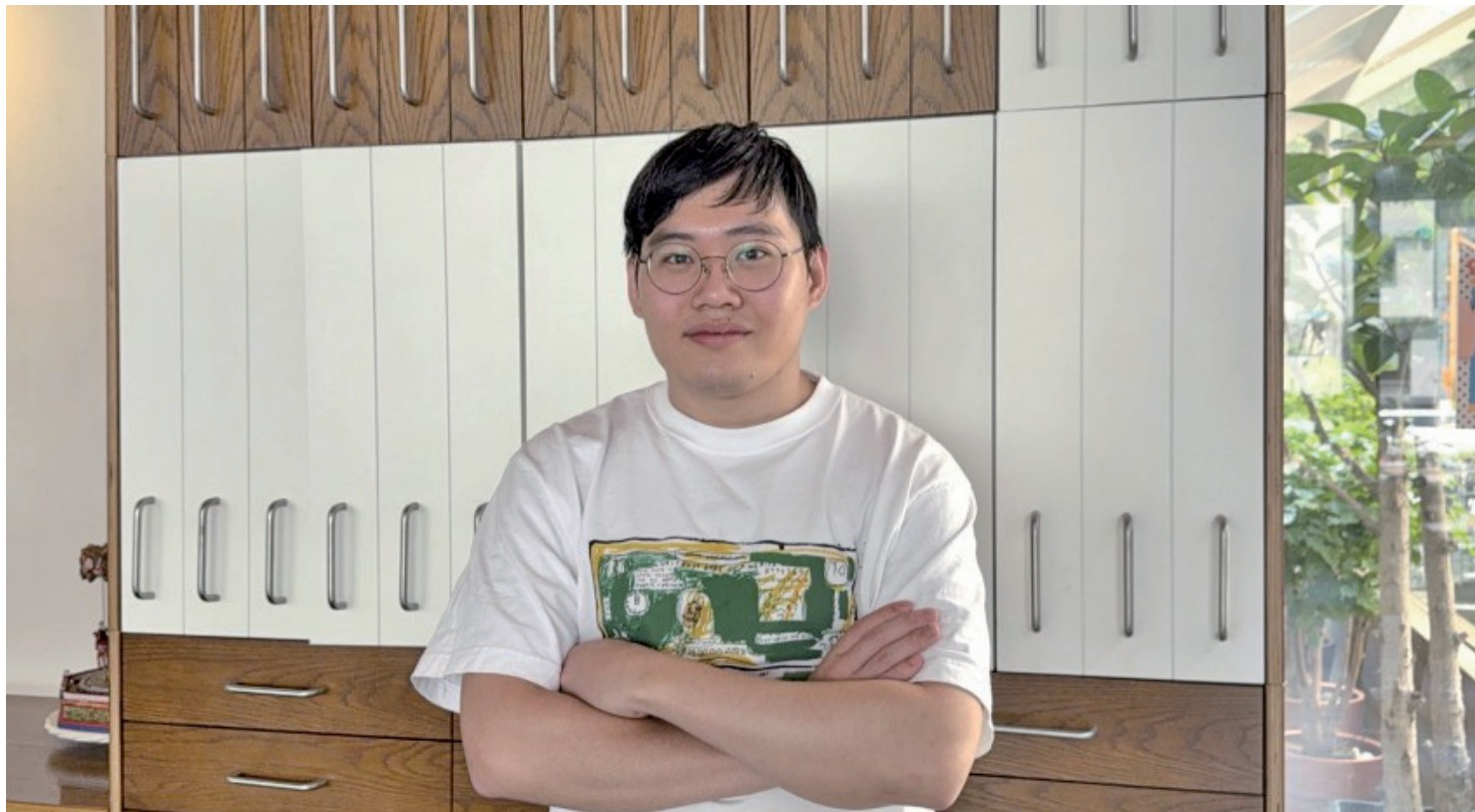
유권자는 단순히 후보 중 한 명을 고르는 선택자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실질적 주체다. 유권자는 출마자의 이미지나 흥행 요소에 휘둘리기보다 각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과 비전, 국정 철학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다. 여전히 진영 논리에 갇혔기 때문이다. 정책토론은 실종됐고, 혐오와 조롱의 언어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젠다의 부재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청년 주거, 불평등 해소 같은 중요한 의제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후보자들은 선거 공약집을 늦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등의 행보를 이어갔다. 더욱이 대선 토론도 가관이었다. 혐오 발언이 난무하는 후보자들의 모습에 보는 내가 부끄러웠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 개인의 과거 행적이나 가족 문제가 아젠다를 대체했다.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공론은 부재했고, 유권자는 선택의 기준을 잃었다.

민주주의도 실종됐다.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전임 대통령 윤석열과 선거 끝까지 절연하지 못했다. 선거 기간 내내 김문수 후보보다 더욱 이슈를 몰고 간 주체는 윤석열과 그의 주변 인물들이었다. 정당한 경선 과정을 거쳐 올라온 자당 후보를 하룻밤 사이 외부인으로 교체하려고도 했다. 과연 민주주의를 수호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이었다.

민주주의와 정치적 의제가 실종된 이번 대통령 선거는 결국 반쪽짜리 선거가 돼버렸다. 유권자에게 더 나은 비전과 실질적인 정책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당은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 급급하거나 정치의 목적을 국민이 아닌 다른 데 두어선 안 된다. 그래야 비로소 유권자 또한 감정이 아닌 합리적 이성으로 정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다음에는 ‘누가 더 못할지’가 아닌 ‘누가 더 잘할지’를 고심하고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가 되고 싶다.

12 사람



이 씨는 “완벽히 실패한 듯 보여도 끝까지 시선을 똑바로 유지하면 해낼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사진=김가빈 기자)

“뱃속 동생을 위한 선물처럼” 따뜻한 영상이 전한 진심

김가빈 기자 woo289504@khu.ac.kr

지난해 진행된 ‘2024 경희디자인마케팅지원단’ 사업에서 최고상인 성남산업진흥원장상을 받은 ‘The 1823’ 팀의 팀장 이지현(디지털콘텐츠학 2018) 씨를 만나 콘텐츠 제작자로서의 그의 도전기를 들어 봤다.

최고상 수상 위해 “게임 영상 남기고자 편집 배워”

지난해 겨울, 무거운 장비를 짊어진 채 홍대에서 내방역까지 길을 걷던 한 학생의 어깨는 팀을 이끄는 책임감으로 더욱 무거웠다. ‘2024 경희디자인마케팅지원단’ 사업에서 최고상인 성남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한 ‘The 1823’ 팀의 팀장, 이지현(디지털콘텐츠학 2018) 씨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어깨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힘들었어요.”

‘경희디자인마케팅지원단’은 우리학교 링크(LINC) 3.0 사업단과 성남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다. 디자인과 마케팅 문제를 안고 있는 성남시 중소기업과 예술·디자인대학 학생들이 일대일로 매칭돼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프로

젝트다. 이 씨와 팀원들은 디지털콘텐츠학 우제승 교수의 ‘디지털영상’ 수업을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신생아 용품 브랜드(‘My Muse is Love’)의 브랜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 씨는 꽤 오래전부터 영상 편집에 관심이 많았다. 중학생 시절, 게임 ‘팀 포트리스2’를 플레이하던 중 게임 화면을 영상을 남기고 싶어 편집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다. 단순한 흥미로 시작된 편집은 기획과 연출로 점점 범위를 넓혔고, 결국 그는 우리학교에서 디지털콘텐츠학을 전공하게 됐다.

그리고 현재 그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DEWILL’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콘텐츠 제작자로서의 꿈

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도전과 책임의 연속 “팀장인 내가 먼저 움직여야”

그가 팀장을 맡은 팀 The 1823은 3개월 동안 기업과의 실무 미팅, 스토리보드 구성, 배우 및 장소 섭외, 촬영과 편집까지 모든 단계를 직접 주도했다. 영상 제작의 전 과정이 이들의 손에서 태어난 셈이다. 이지현 씨는 총괄과 촬영을, 권미진(디지털콘텐츠학 2023) 씨는 연출을, 김채영(디지털콘텐츠학 2023) 씨는 편집을, 이채빈(디지털콘텐츠학 2023) 씨는 미술과 소품 세팅을, 진가연(디지털콘텐츠학 2023) 씨는 감독으로서 촬영 전반의 흐름을 조

율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는 단순히 팀장이 아닌 길을 여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자신에게 부여했다. “수상이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회의, 답사, 촬영 등 모두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팀장인 제가 앞장서지 않으면 팀원들도 저를 믿고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영상의 스토리보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팀원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결정에는 수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구성은 첫째 아이와 엄마가 뱃속의 둘째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따뜻한 이야기,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족 중심의 감성을 잘 담아낸 결과였다. “기업 대표님의 피드백과 브랜드의 감정을 고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수렴됐어요.”

제작 현장도 도전의 연속이었다. 아역 배우와의 촬영은 시간 제약이 많았고, 긴 촬영으로 배우의 피로도

가 높아져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장비 이동부터 현장 세팅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가 쌓였다.

가장 아쉬웠던 점을 묻자,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팀장으로서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명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걸 실감했죠.” 그 아쉬움은 그가 진심으로 팀을 위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자 고민했다는 증거였다.

브랜드 정체성 고심의 흔적 묻어나 실제 마케팅 자료로 쓰이기도

The 1823의 메시지는 먹혔다. 따뜻한 아이보리 톤을 전체적인 색감으로 설정하고, 스튜디오와 소품을 그에 맞춰 구성하며 브랜드의 감성적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이 씨는 “브랜드 톤을 제대로 잡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며 “스토리보드가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브랜드의 감정선을 시청자에게 정확히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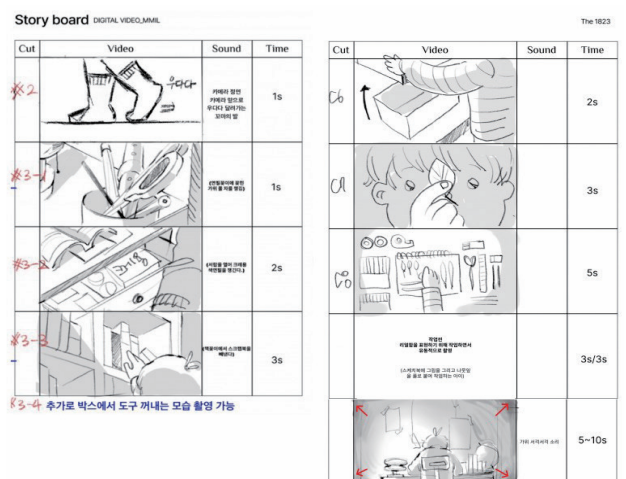
영상이 완성된 직후, 팀 내부와 매칭된 기업인 ‘My Muse is Love’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해당 기업은 이를 공식 SNS 계정에 즉각 게시하였고, 현재까지 실제 마케팅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지역 기반 기업의 수요와 대학생의 창의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한 학생들의 성취가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파급력을 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것이다.

끝으로 이지현 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영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줄었고, 앞으로도 콘텐츠 제작자로서의 방향성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씨는 후배들에게 “절대라는 것은 없다”며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변수는 존재하고, 완벽히 실패한 듯 보여도 끝까지 시선을 똑바로 유지하면 해낼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The 1823’ 팀이 촬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지현 씨 제공)

스토리보드 사진.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견이 오갔다. (사진=이지현 씨 제공)